

No.79

Japan Weekly Digest

2011. 3. 26. ~ 4. 1.

□ 금주의 이슈

- 사망·행방불명 2만8천명, 피난자 17만명
- 도쿄전력, 프랑스정부에 지원요청
- 日, TPP·사회보장 개혁 등 잇따라 재검토 표명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- 전력부족대응을 위한 긴급대책案 발표
- 경상대신, 원전피해자지원 특별팀 팀장 취임
- 경산성, 전국 원자력발전소에 긴급안전대책마련 지시

□ 일본기업전략

- 日자동차부품기업, 西日本에서 대체생산 움직임
- 日기업, 생활필수품 해외조달 가속화
- 파나소닉, 부족한 건전지 해외에서 공수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『복구부흥대책 기본법안』 발표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○ 사망·행방불명 2만8천명, 피난자 17만명

- 동일본 대지진 재해는 31일로 발생한지 21일이 경과. 경찰청에 의하면 사망자는 1만1532명, 행방불명자는 1만6441명으로, **합계 2만8000여명**이 되었음
- 17개 도도부현 약2,000군데에서 17만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소생활을 하고 있음
- 사망자는 미야기현 7012명, 이와테현 3396명, 후쿠시마현 1064명 등. 경찰에 신고가 있었던 행방불명자는 미야기현 7177명, 후쿠시마현 4798명, 이와테현 4562명 등 6개 현에 걸쳐 있음

○ 도쿄전력, 프랑스정부에 지원요청

- 도쿄전력이 프랑스전력공사(EDF)와 프랑스원자력 회사인 아레바 등에 지원을 요청한 것이 28일, 밝혀졌음
- **프랑스는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,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우라늄·플루토늄 혼합 산화물(MOX)연료도 프랑스기업에서 가공되었음**
-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, **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검출된 플루토늄 등에 관한 기술지원을 요청한 가능성이 있다고** 닛케이는 보도
- 간 총리는 31일, 프랑스 사루코지 대통령과 회담하고, 5월 프랑스 **G8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를 의제로 하는 것에 합의**
- 또 IAEA를 통해, 연말까지 **국제적 안전기준을 책정하는 데에도 합의했음**

○ 日, TPP·사회보장 개혁 등 잇따라 재검토 표명

- 간 총리는 29일, 환태평양 경제연계 협정(TPP)교섭 참가나 사회보장과 세금의 일체 개혁발표 시기를 6월에서 연기할 생각을 표명했음
- 대지진 피해자지원이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대응을 우선시키기 위해 "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, 검토할 필요가 있다"라고 언급
- 총리는 "법인세를 포함, 우선도가 높은 것은 무엇인지 논의해야 한다"고 강조하면서 11년도부터의 '법인세율 인하' 재검토 시사

□ 경제산업성 동향

○ 전력부족대응을 위한 긴급대책案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27일,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따른 간토·동북지방의 전력부족에 대응하기위한 긴급대책안을 발표
- 단기 대책으로서 △지역을 한정된 가전 에코 포인트 제도나, △개인주택대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지원 등 가정 관련대책을 중심으로 진행
- 중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절약 설비도입 지원 등 기업을 중심으로 전력의 이용 효율을 높이고, 전력부족을 완화시킨다는 방침
- 경산성은 단기대책을 4월의 보정예산에 담을 생각임. 중장기 대책과 함께 약1조 엔의 예산확보를 목표로 정부 내에서 조정

○ 경상대신, 『원전피해자지원 특별팀』 팀장 취임

- 에다노 관방장관은 29일, 정부의 원자력재해대책본부(본부장·간 나오토 총리) 내에 피해자의 생활지원에 관한 특별팀을 설치했다고 발표
- **피해자의 피난수용, 피해지역에 대한 물자수송·보급, 피폭에 관계되는 의료확보, 환경 모니터링 조사, 정보제공 등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목적**
- 팀장에 가이에다 경제산업성 대신, 팀장대리에 후쿠야마 데쓰로 관방부장관, 사무국장에 마쓰시타 다다히로 경제산업성 부대신을 기용했음

○ 경산성, 전국 원자력발전소에 긴급안전대책마련 지시

- 경산성은 29일, 원자력발전소 안전 확보를 위해 전국의 원자력발전소에 한 달 내에 긴급시 전원확보 등을 포함하는 긴급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
- 발전소의 교류 전원, 원자로냉각설비, 사용후 연료 풀의 냉각 설비 등 모든 기능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도, 炉心이나 사용 후 연료의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긴급시 전원확보 등 6개 항목에 대해 대책을 강구
- 구체적으로 (1)긴급점검의 실시, (2)긴급시 대응계획의 점검·훈련, (3)긴급시 전원확보, (4) 긴급시 잔열제거 기능 확보, (5)긴급시 사용후 연료 풀의 냉각확보, (6)각발전소의 구조를 고려한 대응책 등 6개 항목 실시

□ 일본기업전략

○ 日 자동차부품기업, 西日本에서 대체생산 움직임

- 일간공업신문은 31일, 이번 지진으로 인해 자동차부품 회사가, 경쟁회사나 다른 지역 공장과 협력하고 대체생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
- 지진 재해로 동북·북간토 지역 공장의 재빠른 복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평상시에 점유율을 다투는 경쟁회사라고 하더라도 위기극복 차원에서 협력, 자동차 완성업체에 부품을 공급한다는 전략
- 동북지방에서 피해를 본 한 브레이크 회사는 아이싱정밀기기의 자회사에 브레이크 패드의 대체생산을 요청. 또 엔진 등에 사용하는 다이어프램을 제조하는 후지쿠라 고무공업은, 4월에 폐쇄 예정이었던 오미야 공장에서의 대체 생산을 검토

○ 日기업, 생활필수품 해외조달 가속화

- 이번 대지진 재해에 의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‘생활필수품 해외조달’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닛케이신문이 보도
- 산토리는 해외 제휴회사를 통해 미네랄워터 긴급수입을 검토. 유니참도 자사 기저귀를 해외에서 조달하는 것을 검토. 새로운 조달처를 확보하고, 제품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
- 소매업체인 세븐&아이·홀딩스도 해외 거래처를 활용, 한국과 대만에서의 수입을 준비

○ 파나소닉, 부족한 건전지 해외에서 공수

- 파나소닉은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영향으로 부족해진 건전지 재고에 대응하기 위해, 해외 4개국에서 공수할 방침을 밝혔다
- 건전지는 무거운데다가 비교적 가격이 싸기 때문에 공수하는 것은 이례적임
- 건전지는 태국, 인도네시아, 벨기에, 폴란드에 있는 자사공장에서 수입. 태국, 인도네시아로부터의 공수는 이미 준비했고, 벨기에, 폴란드도 4월 이후에 수입할 방침
- 파나소닉은 건전지의 국내 점유율 1위(약15%)로, 국내에서의 증산에도 이미 착수하고 있음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“복구부흥대책 기본법안” 발표

○ 31일,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복구·부흥을 위한 기본법안을 발표

- 재해에 강한 「복구부흥 마을조성」, 피해자의 생활재건지원 재원확보를 위한 「복구부흥 특별세」창설, 「지진재해 국채」발행의 검토를 명기. 특별세의 구체적인 대안으로서는 법인세, 소비세, 소득세 등의 증세를 검토하는 안도 담았음

⇒ 신속한 복구부흥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체제정비를 위해,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「동일본 대지진 재해 복구부흥 전략본부」를 내각부에 설치

- 조직은 전각료로 구성, 전략본부 밑에 부흥 대책의 일원적 집행기관이 되는 「부흥청」을 신설

□ 기본법안 개요

【국가와 지방자치체의 책무】

- ▽ 피해한 지방자치체는, 국가와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으면서, 각각 지역에 어울린 복구부흥대책을 책정하고, 실시하는 책무가 있다

【기본방침】

- ▽ 지방자치체가 대피소나 가설주택 설치, 의료, 취학지원을 실시했을 경우, 국가는 원칙적으로 비용의 전액을 부담함
- ▽ 국가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 복구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고, 국가부담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
- ▽ 피해자재건 지원법에 근거하는 지원금 증액 등의 개정을 실시함
- ▽ 주택재건과 관련, 피해자의 부담경감조치도 검토
- ▽ 피해실업자가 우선 취업할 수 있도록 특별조치를 강구함
- ▽ 수몰한 피해토지를 적정가액으로 사들이는 것도 검토

【산업의 복구부흥】

- ▽ 수산업, 농업의 피해실업자에는 휴업보상을 실시
- ▽ 국가는 전력회사와 협력하고 전력공급계획을 책정함
- ▽ 국가는 지방교부세의 총액 특례를 마련함
- ▽ 국가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해서, 손실액수가 과세 표준액수를 넘었을 경우 환급 조치를 강구함
- ▽ 지방자치체는 주민세 공제의 특례를 정하고, 고정자산세를 면제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에너지절약 기술전략2011』 경제산업성, 3월29일
*출처:<http://www.meti.go.jp/press/20110328004/20110328004-3.pdf>
- (2) 『제조업의 해외전개』 미즈호종합연구소, 3월30일
*출처:<http://www.mizuho-ri.co.jp/research/economics/pdf/report/report11-0329.pdf>
- (3) 『일본경제전망~11년 대폭하향조정』 NISSEI 기초연구소, 3월31일
*출처:http://www.nli-research.co.jp/report/econo_letter/japan/we110330.pdf
- (4) 『지진재해 부흥을 향한 긴급제언』 경단련, 4월1일
*출처:<http://www.keidanren.or.jp/japanese/policy/2011/022.pdf>
- (5) 『여름의 전기부족위기를 극복하기 위해』 미쓰비시종합연구소, 4월1일
*출처:http://www.mri.co.jp/NEWS/press/2011/_icsFiles/afieldfile/2011/03/31/nr20110331_ccd.pdf
- (6) 『지구온난화에 대한 일본전략』 전력중앙연구소, 4월1일
*출처:<http://criepi.denken.or.jp/jp/serc/discussion/download/10018dp.pdf>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3월 28일(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에너지절약 기술전략2011 발표(경산성) ○ 3월 중소기업 경기조사(일본공고) ○ 요네쿠라 경단련 회장 기자회견
3월 29일(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국 원자력발전소 긴급안정대책 강구 지시(경산성) ○ 전국 원자력안전성검증 결과 발표(경산성) ○ 2월 상업판매통계 발표(경산성) ○ 사쿠라이 경제동우회 기자회견
3월 30일(수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2월 광공업생산지수 발표(경산성) ○ 2월 자동차생산·수출실적 발표(자동차공업회)
3월 31일(목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日-프랑스 정상회담(도쿄) ○ 경산상, 프랑스 원자력회사 아레바(AREVA)CEO와 면담 ○ LP가스 국가비축 4만톤 방출 발표(경산성)
4월 01일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복구부흥대책 기본법안 발표(정부·민주당) ○ 파나소닉, 산요전기를 완전 자회사화